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협의회, 총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J. 마이클 셸리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은 1935년 3월 20일경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24일 첫 주일 예배는 이인범 목사가 시무하던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25일 셸리는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를 제출하였다. 추정컨대 셸리가 취한 이 발 빠른 행동은 이인범도 커닝햄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후인 5월 25일 셸리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회람서신을 작성하여 커닝햄과 요츠야(사곡)선교회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로 인해서 커닝햄과 셸리 사이에 분열이 촉발되었고,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동경 요츠야선교회에게 조선포교를 허가하였으니, 조선선교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커닝햄은 그제야 어찌된 영문인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서둘러 성낙소를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커닝햄은 강력한 후원자인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고 직접 만났으며, 사이토의 서신을 첨부한 편지를 포함해서 수차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편지를 보냈다. 결국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와 이인범을 1936년 1월 10일 소환하여 성낙소에게 포교관리

자사직서를 쓰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 경계를 접수하였다. 만일 사이트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만일 셸리 가족이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면, 만일 총독부가 성낙소 목사에게 사직서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J. 마이클 셸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 이름을 “J. 미카엘(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생년월일을 “1890년 6월 7일생”이라고 적었다. 또 학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대학 신학과 졸업,” 경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얄힐(Yamhill) 시 기독교회 감독목사 임명”이라고 기재하였고, “금년 3월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이라고 적었다. 함께 제출된 안수증서를 보면, 셸리는 1923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얄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당시 미국에서 12년 이상 목회한 경력을 가진 만 45세의 중년이었던 것을 말해준다.

셸리는 1935년 4월 25일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원서에서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로 적었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1항 종교 및 기타 교파 명칭: キリスト敎(크리스토포) 기독교회.

제2항 교규(敎規): 특별한 규정없이 성서를 통해 각 교회가 자치제로 과반수 투표로 직원을 임명. 각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 2인 이상의 집사를 두어 일반재정을 정리. 2인 이상의 장로를 두어 교회의 영적 치리를 맡김. 목사 및 전도사를 두어 일반 신도에게 설교 및 성서적으로 권면. 의식에 있어서는 성찬을 매일요일마다 행하며, 세례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행함.

제3항 포교방법: 포교소에서의 포교, 순회포교, 가정전도, 통신포교, 노방전도.

제4항 포교관리자의 권한: 기독교회의 대표, 포교사무 총괄, 교직 신분 진퇴(進退) 및 상벌.

제5항 포교자 감독방법: 관리자가 각 교회를 방문하거나 통신을 통해서 감독 지도.

제6항 포교관리사무소위치: 경성부 남대문동 세브란스병원구내.

제7항 포교관리자씨명: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y).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본래부터 감독자가 없었으나 일제의 통제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성낙소, 셸리, 이인범, 채이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또는 포교관리자변경계에 담긴 내용들은 상기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2.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계 제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J. 마이클 셸리 가족이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난 지<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1월호)> 만 1년만이었다. 그리고 채이스 가족이 게이조 쇼게추조(경성부 송월동) 32번지의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하여 입주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셸리를 존 T. 채이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

채이스가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조선총독부 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국가기록원)>를 보면, 셸리가 1935년 4월 25일에 등록한 “기독교회”란 교파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포교관리자를 “J. 마이클 셸리”에서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의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에서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로 변경하였다. 그 밖의 것은 셸리가 제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채이스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테네시 주 브리스틀 시”로, 생년월일을 “1905년 9월 17일생”으로, 학력을 “1926년 6월 12일 아메리카 합중국 오하

이오 주 신시내티 신학 졸업”으로, 경력을 “1927년 3월 4일부터 1934년 11월 2일까지 동경 선교사 종사” 및 “1934년 12월 1일부터 1936년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 기독교회 목사로 종사”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936년 11월 7일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되었다고 적었다.

체이스는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한 지 6개월 반쯤 지난 9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자기 자신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

3. 존 T. 체이스와 내국인 사역자들의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1) 김요한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4월 제2호에 따르면, 김요한(金約翰/興範) 목사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돌아온 감리교 목사로서 존 T. 체이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의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되었다가 기독교회로 환원하였다.

체이스는 1937년 2월 신당정에 가정집을 임대하여 김요한 목사 가족을 이주시켰고, 김요한 목사는 그 집에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체이스의 제1호 교회인 ‘기독교회 신당정교회’를 탄생시켰다. 체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1940년 6월초에 체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존 J. 힐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체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

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한바가 있다. 추측컨대 체이스는 이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존 T. 체이스에서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아쉽게도 관보에서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신고된 연월일이 누락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체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의 포교가 금지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직전인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282번지)의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그리고 나흘 뒤인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존 T. 체이스(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 김문화(경기도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 송암 승웅(松巖勝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의 포교폐지계가<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하왕십리정 893번지), 돈암정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산55번지),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2) 최상현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10월 제5호에 따르면, 최상현은 자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체이스를 찾아갔다가 환원하였다. 최상현牧사는 연희전문학교(제1회 졸업),

중국 북경 연경대학교(수학)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신학교에서 강사와 감리교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낸 감리교회 목사였다.

최상현이 체이스를 만난 시점은 1929년 본처사역자로 미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첫 목회를 하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긴 후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 관련된 일을 보던 때였다. 최상현이 기독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의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04호 4면(소화 13년 1월 24일)>.

체이스는 최상현이 1937년 10월 17일 제2호 교회인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자 동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12월 2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16호 6면(소화 13년 2월 7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1944년 6월 30일 포교계와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상황에서도 최상현의 돈암정교회는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주의만찬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건되었다.

3)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4월에 존 T. 체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체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되었다. 이에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9-10면(소화 14년 6월 23일)>.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성낙소 목사의 포교폐지계나 기독교회 내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를 찾을 수 없다. 또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가 1944년 6월 30일 일괄적으로 제출했던 기독교회 포교폐지계와 포교소폐지계에도 성낙소 목사와 내수정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창씨를 개명한 흔적도 없다. 이것은 성낙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포교폐지계와 내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는 것을 반대한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해방 직후 채이스 선교사에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내수정교회는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건되었다.

4) 김문화 목사

김문화 목사는 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도움으로 환원하였다. 성낙소는 1932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임계를 포교규칙에 따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그리고 1936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성낙소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초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3호 3면(소화 15년 3월 14

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6호 2면(소화 15년 3월 18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6면(소화 15년 3월 30일)>.

김문화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돈암정 제2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5) 박판조 목사

박판조는 29살 때인 1937년 여름에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한국인 전령(1937년 12월 제6호), 동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4037호 12면(소화 15년 7월 6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5호 2-3면(소화 15년 7월 4일)>.

그리고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6) 백낙중 목사

백낙중 목사 부부는 둘 다 교사였다. 최상현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박판조와 함께 근 4년간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회 돈암정 교회를 출석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에서 백낙중 목사가 기독교회 왕십리 교회를 시무하였다고 하였는데,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기독교회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조선총독부관보 제4162호 5면(소화 15년 12월 5일)>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교회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포교소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백낙중 목사는 해방직후 자신이 세운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회 공덕교회를 운영하였다.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신고 일자

조선총독부관보와 국가기록원의 문서철 내용으로 볼 때, 조선총독부의 관리와 감독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파명과 신고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32.06.11-1936.07.08

성낙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1932년 6월 11일 신고하였고, 이인범에 의해서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변경되었다.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1936.07.08-1945.08.15

이인범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을 변경하였다. 동경 요츠야(사곡)선교회는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완전히 끊고 한국선교를 포기하였으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해방 전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범은 1943년 9월 17일 포교관리자직책을 평산 무웅에게 넘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며,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의 활동은 1944년 9월 30일까지 이어졌다. 평산 무웅의 9월 30일자 계출(신고) 내용은 67일이나 지난 12월 6,7,9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각각 실렸다. 패망직전 조선총독부의 업무처리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기독교회: 1935.0425-현재

J. 마이클 셸리가 1935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을 '기독교회'로 신고하였고, 존 T. 채이스가 1935년 4월 25일 계승하였으며, 협의회와 총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기독교의 교회: 1937.05.12.-현재

1930년에 선교활동을 펼친 동석기 전도자(목사)는 1937년 5월 12일이 돼서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을 '기독교의 교회'(基督の教會)로 신고하였다. '기독교의 교회'는 교역자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특이 내용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일본 동경 요츠야선교회(설립자: 윌리엄 D. 커닝햄)가 시작하고 후원한 '기독교회'로서 해방 전까지만 존재하였다. 해방 후까지 살아남은 교회들의 일부는 타교단으로 재건되었고(예: 인천 송현성결교회), 커닝햄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 곧 이인범과 이원균은 타교단으로 이적(移籍)하였다. 반면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가 내친 성낙소, 김문화, 이난기, 윤낙영 등은 채이스 선교사가 돌본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매우 아쉽게도 1925년 5월부턴 한국선교를 시작한 요츠야선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

회들에게 남긴 유산은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명칭은 해방 후 ‘기독교회’를 우리말로 풀어쓰면서 시작되었다.

2) 조선총독부에 신고(届出)한 것과는 상관없이 협의회와 총회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이고, 요츠야선교회의 윌리엄 D. 커닝햄이 주도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역자회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30년이며, 동석기 전도자가 주도하였다.

3)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1944년 6월 26일 제3대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김요한의 포교관리자폐지계 제출을 시작으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목회자들과 기독교회들은 나흘 후인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폐지계 및 포교소폐지계를 제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폐지 후에도 성낙소의 내수정교회와 최상현의 돈암정교회는 비밀리에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다.

4)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폐쇄당할 때까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기독교회’란 명칭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한 뒤, 1941년 초부터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는 세 차례나 투옥됐었다고 채이스에게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도 같은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만일 ‘기독교회’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였더라면, 앞부분에 ‘일본기독교’ 또는 끝부분에 ‘교단’이란 수식어가 붙어 ‘일본기독교기독교회’ 혹은 ‘기독교회교단’이란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아래에 소개한 3개 교단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했던 대표적인 교단들로서 교단명칭변경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수식어가 변경 후에는 앞부분에 ‘일본기독교’와 끝부분에 ‘교단’이란 수식어가 새로 붙었음을 보여준다.

(1)구세군(救世軍)은 구세단(救世團)으로 교과명칭을 바꾸는 교종과명칭변경계를 1940년 말 혹은 1941년 초에 제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4216호 4면(1941년 2월 13일)>.

(2) 기독교조선감리회(基督教朝鮮監理會)는 기독교조선감리교단(基督教朝鮮監理教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종과명칭변경계를 1941년 6월 12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4347호 2면(1941년 7월 21일)>.

(3) 조선야소교장로회(朝鮮耶穌教長老會)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日本基督教朝鮮長老教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파명칭변경계를 1943년 5월 15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4918호 4면(1943년 6월 25일)>.

5)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는 ‘평산 무웅’과 ‘송산 의웅’ 두 사람이다. 평산 무웅은 기독교회를 떠난 이인범의 후임자로 제2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가 되었고, 송산 의웅은 이인범의 후임자로서 아현정교회에 부임하였다. 평산 무웅은, 그의 주소가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소와 동일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신신근 목사였을는지 모른다.

6) ‘기독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는 ‘송암 승웅’과 ‘산천 룡’ 두 사람이다. 그들의 주소지로 미뤄볼 때, 송암 승웅은 박판조 목사, 산천 룡은 최상현 목사였을는지 모른다. 만일 송암 승웅이 박판조였다면, 그는 1940년 전반기에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를 맡았다가 채이스 가족이 모금을 위해 귀국한 다음 존 J. 힐과 김요한이 1940년 여름에 방문하여 설립을 도운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에 부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 9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암 승웅(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 거주)의 포교계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4130호 4면(소화 15년 10월 28일)>.

7) 해방직후 채이스는 박판조가 남하하지 않고 북한에 남아 한의 업(아마도 약초)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해방직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는, 김일성의 별장이 남아있는 것에서 보듯이, 소련군정과 북괴치하에 있다가 6.25동란 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된 지역이다.



專 錄 報 查 原

相 同 ？

官 報 場 致 案

◎ 布 教 管 理 有 限 公 司 提 出 之 申 請 在 內 如 下
 昭 和 十 年 十 月 廿 五 日 基 督 教 會 宗 教 管 理 法 所 在 地 布 教 管 理 有 限 公 司
 宗 教 管 理 有 限 公 司 提 出 之 申 請 在 內 如 下
 昭 和 十 年 十 月 廿 五 日 基 督 教 會 宗 教 管 理 法 所 在 地 布 教 管 理 有 限 公 司

第 二 案 (宗 教 管 理 法)

宗 教 管 理 法 所 在 地 布 教 管 理 有 限 公 司 長

各 道 知 事 宛

首 題 一 件 左 記 一 通 函 出 于 十 月 廿 五 日 付 了 知 照
 成 了 之

810

0437

條任據 記

一、宗教改革、教派宗派、為輔

二、教規又、宗教

特別十七、規定、手聖書、通、各教會、自治制、十、

過半、投票、二、依、戰、責任、又、

各教會、自治、罪、悔、改、洗、禮、受、分、者、限、

會、員、又、

二人以上、執、事、置、手、一、財、政、理、又、

二人以上、長老、置、手、一、會、員、之、治、理、又、

牧、師、之、傳、道、呼、召、一、職、任、任、說、教、且、聖、書、

以、手、教、養、又、

儀式、聖、餐、每日、禮、拜、日、行、

洗、禮、河、又、海、陸、行、

三、布教、方法

布、教、所、於、以、布、教、巡、回、布、教、永、遠、傳、道、

通、信、布、教、改、傳、傳、道、

四、布教管理、方法

一、基督、教會、之、代表、又、只、布、教、事、務、之、總、攬、又、

二、教、職、身、分、進、退、及、懲、罰、之、處、分、又、

五、布教者、監督、方法

管理、者、自、身、各、教、會、之、歷、史、之、或、通、信、報、告、以、手、監、督、

培、導、又、

六、布教管理、事務所、位置

京、城、南、大、門、通、五、丁、目、百、五、番、地、

七、布教管理、者、氏、名

世、三、力、三、七、二、五、丁、目、

(後、聖、書、者、參、)

以上

0438

中華民國十五年四月二十六日
 第一四七號
 第五六四號

0439/17

布教管理者設置

令般布教管理者之設置其關係三付布教規則外
 係也

昭和十年四月廿五日

Michael Shelly

Michael Shelly

朝鮮總督官印

一 宗教及其教派名稱

* 基督教 基督教會

二 教規
 特別之規定ナラズ重々著し通リ各教會八百
 以上ノルニ過キ教派ニ依リ職責ヲ任命ス
 各教會八百ノ下ニ在リ洗禮ノ儀ヲ行フ
 者ニ依リ會費トス
 之以上ノ執事ヲ置キ之一般財政ヲ處理ス
 之以上ノ長老ヲ置キ之教會ノ長クニ治理ス
 牧師及傳道師トシテ之ヲ報候徒ニ課教ス
 其ノ寫書ヲ以テ教券トス
 儀式 聖餐 每星期日此ヲ行フ
 洗禮 河水ニ入リテ此ヲ行フ

三 布教方法
 布教所ニ於テ布教、巡回布教、
 家庭傳道、通信布教、踏訪傳道、

四、布教管理者、権限

イ、基督敎會ヲ代表ス

ロ、布敎事務所ヲ總攬ス

ハ、敎職、身分進退及賞罰ヲ處断ス

五、布敎者監督方法

管理者自ラ各敎會ヲ巡訪シ或ハ

通信報告ヲ以テ監督指導ス

六、布敎管理事務所、位置

京城府南大門通セダラニス病院構内

七、布敎管理者氏名

ゼ、ミカエル・シエリー

Michael Shelly

0440

履歴書

原籍 カリフォルニア州オレンジ郡
現任 米政府 駐日米大使館書記官
カリフォルニア州オレンジ郡
ミシガム郡
ミシガム郡

Michael Shulby
ミシガム郡
General Shulby

西曆一九九〇年六月七日生

學業

アメリカ合衆國オレンジ州ユダネ大學生神學科卒業

經歷

アメリカ合衆國オレンジ州ヤムビル市基督教會ノ監

督教師ニ任命セリ

今年三月朝鮮堂教師ニ任命派送セリ

以上

右之通り相違無之候也

昭和十年四月十五日

セ、ミカエル、シエリー

Michael Shulby

0441

347

証文書 (譯文)

オレゴン州ヤタール所在「キヤークオグクリスト」及
「ハックロフト」ミシジョンポイントキヤークレハム前記
「キヤークオグクリスト」の全員タルゼ、エム、シエ
リヲ傳道事業上有資格者トシテ選定
セリ 仍テ同人ヲ福音傳道師ニ任命ス
左証文ス

一九二三年八月二十三日

左証文司會者

(以下大見ノ氏名列記)

一月 廿 日 廿 日

342

0442

CERTIFICATE OF ORDINATION (duplicate)
"Preach the Word."

TO ALL WHOM IT MAY CONCERN, GREETINGS:

This is to certify that Bro. J.M. Shelley
a member of the church of Christ, worshipping in Yamhill,
Oregon, was selected by said Church and the Hutchcroft
Mission Point Churches as a competent person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and accordingly on the 12th.
day of August, A.D. 1923, our Beloved Brother was ordained
a Minister of the Gospel.

OFFICIATING MINISTERS (J. Earl Ladd)
(Oscar A. Cooper)

Assisted by:

C.V. Kuykendall
E.F. Simmons
L.H. Kuykendall
Gertrude A. Daniels

349

0443

昭和十二年二月

布教管理署變更屆

今般郡各三休り當布教管理署左記通り
變更致候間新舊布教管理署
此段及御届候也

昭和十二年二月

京鐵道京政府南大門通平田一五番地

舊布教管理署 Michael Shelley

京鐵道京政府南大門通平田一五番地

新布教管理署 J. P. Chan

朝鮮總督 南水部 殿

記

一 本教及共教派名稱

基督教 基督教會

二 舊布教管理署 女名

也、三カエル、シエリ

三 新布教管理署 女名

京鐵道京政府南大門通平田一五番地

以上

J. P. Chan
15/2/12

J. P. Chan
15/2/12

1109

第1109号

履歷表

李籍 乃乃乃合象國乃不乃乃乃乃乃
 現任許 朝鮮京城智松月町三十三番地
 女三ノ一、女五ノ一
 西曆一九〇五年九月十七日生

學業

一九〇三年十月十日 乃乃乃合教團乃乃乃乃
 三ノ一乃乃乃乃乃 神學卒業

仕免事項

一九〇三年七月十四日、一九〇三年十月

二日乃乃乃東京子道教師ニ從事

一九〇三年十月一日、一九〇三年

三月十五日乃乃乃乃乃乃乃乃乃乃

乃乃乃乃乃乃乃乃乃乃乃乃乃乃

事

一九〇三年十月七日朝鮮子道教師ニ任命

沙遠

賞到

右之通、相違無之候也

昭和三年 月 日 右 乃乃乃乃乃